



농어촌 활력 창출을 위한 '스마일 농어촌운동' 대대적 전개

농림수산식품부는 인구감소, 고령화로 침체된 농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스마일 농어촌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식품부는 이 운동의 전략 목표를 '전국에 1만 개의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로 정하고 2013년까지 3,000개를 우선 발굴·육성하기로 했다. 색깔 있는 마을의 형태는 체험·관광, 전통문화, 음식, 축제, 특화산업 등으로 다양하며 마을이 지닌 잠재적 자원을 발굴해 차별화하는 개념이다.

'스마일 농어촌 운동'은 2013년까지 창조적 사고와 전문기술을 지닌 농어촌 핵심 리더 10만 명을 육성해 마을발전을 견인하게 된다. 또한 국민운동추진위원회 사무국에 '재능뱅크'를 설치하여 농산업, 경영, 경관, 계획, 공학, 금융, 디자인, 건축 등 다양한 분야의 100만 재능기부자를 확보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농어촌에 연계시킬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운동의 성공적인 전개를 위해 정부, 농식품단체, 학계, 재계, 문화계 등을 대표하는 '국민운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지방단위에는 시·도, 시·군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현장포럼과 마을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역대학교에 농어촌 활력창출 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스마일 농어촌 운동'의 전국적인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연간 약 1조 5,000억 원에 달하는 농어촌분야 포괄 보조사업을 이 운동과 우선적으로 연계하여 추진하고, 5~6월 중에 '국민운동추진위원회'를 발족할 예정이다. 또한 이 운동에 대

한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해 전국적인 순회설명회 개최, 관계 공직자 교육 등 적극적인 교육·홍보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출처: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과수를 수출유망 산업으로 육성

농림수산식품부는 자유무역협정(FTA) 등 시장 개방에 대응하고 과수산업 경쟁력제고, 농가 경영안정, 소비자 중심의 고품질·안전과실 생산과 수출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과수산업발전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기반 확충, 무병묘공급을 위한 원종관리·증식, 바이러스 검정 등 '중앙묘목관리센터' 기능 강화, 비용절감형 재배기술 보급 등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6,805억 원을 지원한다.

둘째, 주산지 권역별로 과실 전문 산지유통센터(APC) 30개소를 설치하고 유통물량의 30%를 처리하도록 유통구조를 개선한다. 생산자 조직화, 산지규모화 등을 추진하여 과실 전문APC를 산지유통의 핵심주체로 육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기존 소규모 선과장·일반APC(45개)를 통·폐합하여 중규모(5,000~1만 톤) 전문APC로 확대한다.

셋째, 공세적 수출 추진으로 신선과실 수출을 2017년까지 2억 달러로 확대하고, 과수산업을 미래수출유망 산업으로 적극 육성한다. 미국(Zero Tolerance제도), 일본·대만(Positive List System) 등 식품안전관리에 대응한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체계를 확보하고, 수출 물량 공급을 위해 품목별 수출 선도조직을 육성하여 생산의 조직화·규모화를 촉진한다.

넷째, 기후변화 등에 대비한 우량 신품종 육성·생산비 절감기술 개발, 가공식품 개발을 통한 신수요 창출 등 연구개발(R&D) 지원을 강화한다.

<출처: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곤충산업 전문인력 육성

농림수산식품부는 곤충산업을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고자 곤충산업에 대한 종합 교육프로그램을 신설·운영하고 2015년까지 전문인력 양성기관 9개소(농촌진흥청 5개소, 산림청 4개소)를 지정할 계획이다. 곤충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2010. 8), 「제1차 곤충산업육성 5개년 계획(2011~2015)」을 수립(2010. 12)하여 법적·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

또한 곤충 생산단지·체험학습장의 규모화·현대화를 위해 곤충생산단지조성사업 4개소, 곤충체험·학습시설조성사업에 17개소를 선발하여 총 17억 원의 국고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곤충산업육성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전문교육기관 지정·운영을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동력을 확보해 나가고자 한다.

정부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권한은 농촌진흥청장과 산림청장에게 위임되어 각 청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에 준하는 교육과정 및 시설을 갖춘 기관을 곤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게 된다. 곤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대상자(곤충관련대학, 협회 등)는 2012년부터 지정신청서를 농촌진흥청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하면 평가를 거쳐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관계자는 곤충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곤충농가, 업계 종사자들의 곤충산업 전문교육 수요를 충족시키고 전문가 수준의 사육능력 등을 갖추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반인과 학생들에게는 보다 높은 수준의 곤충 체험 및 학습의 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한국농촌경제연구원>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개정·고시

녹색인증제는 정부의 주요 정책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고자 녹색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2010년 4월에 농림수산식품부 등 8개 부처 통합고시로 제정되어 시행 중이다. 특히 농림수산식품분야에 대한 평가기관으로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농림수산식품분야 녹색인증실적은 23건(녹색기술 20, 녹색전문기업 3)이다.

이번 개정·고시는 녹색인증제의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시행 초기에 보완이 필요한 평가기준 등의 개선을 위한 것으로 녹색산업 현장에서의 신규 인증수요 증가와 녹색인증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녹색인증 대상을 확대했다. 녹색기술 인증 대상은 기존 61개에 신규 24개를 추가(태양열, 지열, 핵융합, 콘텐츠, 바이오의약 등)하여 85개로 확대하고, 녹색사업 인증대상은 기존 95개에 신규 10개를 추가(지열에너지, 고효율화 공정설비, 방송통신, 콘텐츠 보급)하여 105개로 확대했다.

둘째, 녹색기술 인증 시 평가항목 중 기존 시장성(30점) 항목을 삭제하고 기술우수성(40 ⇒ 60점) 및 녹색성(30 ⇒ 40점)의 배점을 상향 조정하고, 녹색사업 인증 시 평가항목 중 사업타당성(20점)을 정책적합성으로 대체하여 평가항목을 조정했다.

셋째, 인증대상 확대에 따라 신규 인증대상에 대한 기술수준을 새로 마련하고, 기존 일부 기술수준 중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그 기준을 현실화했다. <출처: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소비자 중심으로 축산물 등급기준 개선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소비자가 돼지고기 구입 시 품질에 대한 변별력을 높일 수 있도록 6월 1일부터 개정된 돼지 등급판정기준을 적용한다.

돼지고기는 식육판매점에서 등급별로 구분·판매되고 있는 쇠고기와 달리 상대적으로 등급 간 변별력이 떨어져 지금까지 등급별 구분판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소비자에 대한 품질정보 제공이 미흡하다는 의견 등을 반영해 등급기준을 소비자 중심으로 대폭 개선했다. 먼저 육질등급의 종류를 기존의 4개 등급(1+, 1, 2, 3)에서 3개 등급(1+, 1, 2)으로 단순화하여 소비자가 육안으로도 육질이 좋고 나쁨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했고, 삼겹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덩어리 지방이 상위등급에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돼지고기 특유의 냄새(웅취)를 유발하여 불쾌감을 일으키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 거세하지 않은 수돼지의 고기는 기존의 3등급에서 '등외' 등급으로 판정하는 등 등외등급 기준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국내산 돼지고기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했다.

한편, 7월 1일부터 식육판매업소의 표시판 기재 사항 중 '등급'의 표기방법을 개선해 축산물의 품질을 쉽게 알 수 있게 했다. 지금은 표시판의 '등급'란에 해당등급을 기재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등급의 종류를 모두 나열한 다음 해당등급에 '○'으로 표시해야 한다. 이는 축산물의 종류에 따른 특성상 등급의 구분이 같지 않아 발생하는 불편한 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동 제도가 시행될 경우 표시판을 통해 해당등급을 정확히 알 수 있어 소비자의 소비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도시농업활성화 추진

농림수산식품부는 6월 8일 개최된 제11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에서 'Green 도시농업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2020년까지 도시텃밭·주말농장 8,000개소(3,000ha)를 조성해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10%(500만 명) 이상을 참여시킨다는 목표로 설정되었다. 이를 위해 도시텃밭 확대, 도시 주말농장 활성화, 도시농업공원 조성, 도시빌딩 녹화, 식물생산공장 산업화와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등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녹색공간 확충이다. 건물옥상, 학교부지, 공공유�휴지 등에 도심텃밭 7,200개소를 조성하여 녹색공간을 확충하고, 주차장, 쉼터 등 편의시설도 확충할 계획이다. 둘째, 도시빌딩 녹화 및 식물생산공장 산업화이다. 도시빌딩의 녹화 조성으로 도시온도 저감 및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발광다이오드(LED), 정보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등을 활용한 첨단농업 식물생산공장(Vertical farm)을 추진할 계획이다. 셋째, 도시농업 인프라 구축이다.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도시농업 포털사이트 구축, 도시농업 특성화 과정 운영, 민간 중심의 네트워크 강화, 도시농업 박람회 개최 등 공감대를 확산할 계획이다.

정부는 도시농업으로 인해 ① 도시텃밭·주말농장·농업공원으로 인해 쾌적한 녹색공간이 조성되고, ② 도시빌딩 녹화와 식물생산공장의 산업화로 연관된 산업 발전과 일자리가 창출될 뿐만 아니라 ③ 도시민과 청소년의 정서순화에도 도움이 되어 도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가 확산되어 궁극적으로는 국민통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어업분야 고유가대책 추진

농림수산식품부는 국제 유가 급등에 대비하고 농어가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에너지절약시설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등을 포함한 농어업분야 고유가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농업용 면세유의 65%를 사용하는 원예산업의 유류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에너지 절감률이 78%에 달하는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절약시설 보급을 확대하고, 노후화된 시설의 현대화를 통해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하며 에너지절약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규모도 확대한다. 둘째, 에너지 절감률이 78%에 이르는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면적도 2010년 223ha에서 2020년까지 4,453ha로 대폭 확대한다. 지열 설치비 지원대상을 유리온실 이외에 축사나 양식장까지 확대하는 한편, 지열에 비해 투자비가 2/3 정도 덜 드는 공기열 냉난방 시설도 경남·제주·전남 등 외기온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3개 시·도에 신규로 지원한다. 또한 면세유 사용량이 많은 농가에 대해서는 에너지절약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되 설치하지 않을 경우 면세유 공급량을 줄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셋째, 에너지 절감률이 46%인 다겹보온커튼 등 에너지절약시설 보급면적을 2009년 813ha에서 2020년까지 1만 2,349ha로 확대한다.

아울러 온실 현대화를 위해 2018년까지 총 100개 원예전문생산단지에 대해 온실 증개축 및 시설 현대화를 지원하되 평가를 거쳐 3회 연속 최우수평가단지는 증개축 지원규모도 현재 기존 온실면적의 30%에서 앞으로는 100%까지 확대하되, 2회 연속 평가성적이 저조한 단지는 온실 증개축 및 시설 현대화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출처: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화훼를 수출 산업으로 육성

농림수산식품부는 고품질 화훼 생산기반 확충, 선진 유통체계 구축, 생활 속의 꽃소비 활성화, 화훼 수출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훼산업발전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1994~2010년에 5,000억 원을 투입하여 화훼산업육성을 추진한 결과 신품종 보급, 수출증대 등 성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여전히 꽃소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첫째, 화훼 생산시설 현대화, 신품종 개발, 습식유통 확대 등 화훼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한다. 화훼전문생산단지를 중심으로 시설 현대화, 비용절감형 재배기술 보급을 추진하고, 생산자 단체, 수출전문업체를 중심으로 화훼브랜드 경영체(법인)를 육성하고 생산·유통관련 시설 등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국산신품종 육성 및 로열티 대응을 위해 R&D지원을 확대하고, 고품질 화훼유통을 위해 건식유통에서 습식유통방식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둘째, 화훼 소비문화 확산을 위한 기반조성, 생활 속의 꽃가꾸기 운동 전개, 꽃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전개, 화원의 역할 확대, 화환문화 개선 등 꽃 소비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셋째, 화훼수출전문단지 지원을 확대하고, 신시장개척 지원 및 수출 신품종 육성 등을 통해 화훼수출을 2017년까지 3억 달러로 확대할 계획이다.

절화 중심에서 분화 등을 포함한 수출품목 다변화하고, 수출국도 일본 중심에서 러시아, 중국 등으로 확대하고, 자조금 활용, 해외바이어 초청 등 시장 개척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우수브랜드 생산자, 수출선도조직 등 생산자단체, 수출업체를 중심으로 농가 조직화·전문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출처:한국농촌경제연구원) ㉞